

“열받지 마세요” ... 폭염·열대야 9월 초까지 이어집니다

광주·전남 열대야 26.4일 역대 1위 당분간 1위 기록 날마다 경신될 듯

올 여름은 기상청 관측 이래(지난 1973년)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밤잠을 가장 많이 설친 계절로 남게 됐다.

하지만 폭염과 열대야(밤 최저기온 25도 이상인 날)가 9월 초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광주·전남 평균 열대야 일수 기록(8월 21일자 1번)이 당분간 날마다 새롭게 경신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광주·전남의 평균 열대야일수는 지난 21일까지 26.4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 역대 1위 평균 열대야 일수인 2018년 기록(25.7일)을 갈아치운 것이다.

광주와 전남을 따로 나눌 경우에는 올해 광주지역 열대야는 30일로 역대 4번째로 많은 열대야를 기록하고 있다.

1994년 광주 열대야 37일, 여수 열대야 42일 등을 기록해 올해 열대야가 역대급 기록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역민이 느끼는 체감 열대야는 역대급이다.

당분간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돼 광주·전남 평균 열대야 일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절기상 더위가 그친다는 처서(處暑)를 맞았지만, ‘처서의 마법’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이 나왔다.

오히려 티베트고기압의 세력이 더 세질 것으로 보여 폭염은 9월 초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후 생성된 태풍도 9호 태풍 종다리와 유사하게 열기가 가득한 수증기를 몰고와 더위를 가중 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기상청은 광주·전남에 23일 아침까지 5~50mm의 비가 내린 뒤 한반도 서쪽으로 잠시 물러갔던 티베트고기압이 다시 확장해 한반도를 뒤덮겠다고 설명했다.

제10호 태풍 ‘산산’도 더위를 식혀주기보다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북서진해 일본을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 산산은 우리나라로 고온다습한 바람을 밀어 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이 이날 발표한 ‘광주·전남 1개월 전망’에



처서인 22일 오후 광주시 서구 상무시민공원 내에 설치된 쿨링프로그에서 뿜어져 나오는 수증기가 지나가는 시민의 더위를 식혀주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서도 9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다.

9월 2~8일은 광주·전남이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 자리에 들어 평균기온이 평년(23.7도)보다 높을 확률이 60%, 비슷할 확률 30%, 낮을 확률 10%로 예상돼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9~15일에 대해선 평년기온(22.5도)보다 높을 확률과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각각 40%, 낮을 확률이 20%로 전망됐다.

한편 24일 광주·전남 일부 지역에는 5~30mm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으나 비가 그쳐도 습도가 높아 기온은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광주·전남 낮최고기온은 32~35도를 보이겠고, 24일 광주·전남 아침최저기온은 23~27도, 낮최고기온은 32~35도에 분포하겠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곡성·영광군수 재선거 조국당 돌풍 불까

두 곳 모두에서 민주당과 승부 지도부 머물며 집중 유세 펼쳐

조국혁신당이 오는 10·16 곡성·영광군수 재선거 총력전을 선언하면서 지역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지난 총선 비례대표 선거 돌풍에 이어 이 지역 재선거에도 또 한번 돌풍을 일으킬지 관심이 쏠린다.

조국혁신당은 두 곳의 재선거 지역에 후보를 내고 당선을 목표로 ‘지도부 격전지 한 달 살이’ 등 강도 높은 선거 전략을 논의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전면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일색이었던 광주·전남지역 재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 낸다면 다음 지방선거의 지형도 요동칠 전망이다.

22일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오는 29~30일 영광에서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열고, 30일에는 곡성에서 당원 간담회를 할 계획이다.

또 조국혁신당 내에서는 당선을 목표로 지도부가 선거구에서 한 달여 머물면서 집중 유세전을 펼치는 방안 등도 논의되고 있다.

조국 대표의 지역 내 인기가 높아 재선거 선거구에 일정 기간 머물면 충분히 지지율을 끌어 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조국 대표도 최근 지도부의 선거구

일시 거주에 대한 질문에 “그게 방법이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 결전을 앞두고 당 지도부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은 조국혁신당의 지난 총선 비례대표 호남지역 득표율이 1위였고, 재선거가 치러지는 영광·곡성에서의 득표율은 각각 39.46%·39.88%였기 때문이다.

조국혁신당은 지난달 ‘10·16 보궐선거 기획단’을 구성한 뒤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한 조윤정 전 여성비전네트워크 이사장을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하며 이미 선거전에 돌입했다.

또 조국혁신당은 같은 달 호남 출신인 장성훈 당대표 비서실장을 임명하며 호남 표발을 다지기 위한 체비에 돌입했다. 장 비서실장은 전남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조국혁신당 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다양한 국정경험을 보유하는 등 지역 네트워크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의 ‘호남 진격’에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의 호남 독점’이 균열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광주·전남지역은 민주당의 치열한 경선 이후 본선이 사실상 의미가 없었지만, 조국혁신당이 대안세력으로 떠오른다면 치열한 본선 경쟁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최근 호남 민심이 예전 같지 않은 점도 조국혁신당은 기회라고 엿보고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

문 의뢰로 지난 12~1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포인트) 결과, 민주당은 전국에서 지난주보다 5.4%포인트 상승한 42.2%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반면 호남에선 3.8%포인트 떨어진 50.0%의 지지율을 나타내는 등 총선 이후 호남 민심이 심상치 않은 점을 보이고 있어서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아울러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땃밭’인 호남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율이 20%대에 머무르는 등 호남 투표율이 저조했다는 점도 민주당에게는 ‘위기’로, 조국혁신당에게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으로서도 유일하게 최고위원에 출마했던 민형배(광주 광산) 의원이 광주·전남에서 1위를 차지하고도 나머지 지역에서 저조한 득표율로 고배를 마시면서 민주당 지도부에서 호남을 대변할 지도부 인사가 부족해 호남 정치가 변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지역 정치권에서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점도 조국혁신당으로서는 민주당의 ‘안방’을 파괴하는 절호의 기회로 여길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해석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조국혁신당이 10·16 재보선에서 민주당의 땃밭인 전남에서 정면 승부를 한다면 치열한 승부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NBS, 尹 국정 지지율 긍정 27%·부정 63%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전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7%였다. 이는 2주 전 조사와 비교해 2%포인트(p) 떨어진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p 오른 63%였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1%, 더불어민주당 29%, 조국혁신당 9%, 개혁신당 2%, 진보당 1%, ‘지지 정당 없음·모름·무응답’ 26%였다. 2주 전과

비교해 국민의힘은 1%p 하락했고, 민주당은 5%p가 올랐다.

민주당 8·18 전당대회에서 대표직 연임을 확정 한 이재명 대표가 향후 당 대표 직무를 얼마나 잘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 ‘긍정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49%였고, ‘부정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41%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고, 응답률은 15.7%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공동 (예술의 거리) 근린상가 경매물건

2024년 9월 4일 입찰진행

[3차] 최저가 1,357,333,000원
(유치권 신고는 있으나 유치권 성립여지 없음)

광주동부경찰서 인근으로
향후 부동산 가치 상승 기대됨.
식당, 갤러리, 카페 적합

부동산임의경매 : 2024타경 60825
부동산소재지 :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 24-2의 6필지

법원감정가 : 2,423,808,600원
토지가격 : 2,044,445,000원 (구 174.2평)
건물가격 : 379,363,600원 (구 101.5평)

상담문의 · 010-6648-0725